

서구식 세계지도의 조선적 해석, <천하도>*

배 우 성

청운대학교 교양과정

Ch'ŏnhado, Koreans' Own Interpretation on the European World Map in Late Chosŏn Period

BAE Woo-sung

Department of General Education

Chungwoon University

ABSTRACT

Ch'ŏnhado(天下圖, map of the world) is one of the traditional world maps frequently found in Korea. This circular map is composed of a main continent, inner sea, outer land ring, outer sea and a pair of trees on the east and west sides. There are too many imaginary countries and place names in this map. That is why many scholars regarded it as a merely imaginary map oriented in the ancient Chinese or Buddhistic tradition.

Ch'ŏnhado is, however, related with European world maps translated into Chinese Character. In the late 16th century Jesuits World Maps were introduced into Korea via China. One feature of the map is that China is placed near the center. This was the result of Matteo Ricci's concession to the belief of the Chinese, "China is the center of the world".

Koreans found the wider world beyond the east Asia but they were reluctant to recognize the European originality. Koreans thought that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European world maps are declared by the ancient oriental scholars and thus revived the ancient oriental classics like Sanhaegyong(山海經) etc. Ch'ŏnhado is the result of Koreans' own Interpretation on the European World Map, and the clear evident of Koreans' cultural capability.

Key words: Ch'ŏnhado, World Map, Sanhaegyŏng, Matteo Ricci

* 海野一隆의 논문을 구해볼 수 있게 도와주신 이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淮南子』는 한국사자료연구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원문자료를 이용했다. 홈페이지 운영자인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허성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1. <천하도> 연구의 문제점

이 글은 독특한 형태의 세계지도인 <천하도>를 조선후기의 역사적, 문화적 상황과 관련해 이해해 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천하도>는 한국에서만 발견된다는 특이성 때문에 오랫동안 주목받아 왔지만, 그 기원과 내용, 의미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형편이다. 나카무라(中村拓)는 중국에서 한대 이전에 만들어진 <천하도>가 조선에 전래되었으며, 16세기 이후 인쇄술 발달에 따라 널리 보급되었다고 주장했다.¹⁾ Ledyard는 1402년에 만들어진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이하 <강리도>) 계열의 <대명국도>로부터 <천하도> 중앙대륙의 윤곽을 유추한 바 있다.²⁾

한편 김양선은 <천하도>가 주나라 사람 鄒衍의 세계관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魏伯珪(1727~1798)의 『환영지』를 빌어 설명하고, <천하도>가 이미 고려시대에 기원한 것이라고 보았다.³⁾ 윤노(海野一隆)는 <천하도>에 대해, 그 윤곽은 마테오 리치의 서구식 단원형 세계지도로부터 촉발된 것이지만 내용상으로는 도교적 내지 신선적 세계도라고 이해했다.⁴⁾ 이찬은 <천하도>의 윤곽을 <사해화이총도>나 마테오 리치 지도로부터 유추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추연의 세계관을 표현했다는 김양선의 견해를 따르면서도,⁵⁾ 최근에는 조선후기 실학자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⁶⁾ 필자는 <천하도>와 서구식 세계지도가 천지대응의 이미지를 공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⁷⁾

나카무라의 견해는 한국인들이 유사 이래로 독립적인 문화해석능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편견에 기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정력적 연구를 뒷받침할 만한 실증적 근거들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김양선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지만, 추연 자신이 말한 세계는 김양선이 근거로 제시한 위백규의 해석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 Ledyard가 지적하듯이 추연의 세계관을 위백규처럼 해석한 다른 사례가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 또 Ledyard의 견해는 외대륙을 포함한 <천하도> 전체의 구성을 설명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

1) Nakamura Hiroshi, "Old Chinese Maps Preserved by the Koreans," *Imago Mundi* 4(1965).

2) Gari Ledyard, "Cartography in Korea," *The History of Cartography Vol 2, Book 2*(1994), pp. 235~345.

3) 金良善, "韓國古地圖研究抄", 『崇大』 10(1965); 『梅山國學散稿』 (1972).

4) 海野一隆, "李朝朝鮮における地圖と道教", 『東方宗教』 57(1981).

5) 李燦, "조선시대의 지도책", 『한국의 전통지리사상』 (민음사, 1991), 95~99쪽.

6) 李燦, "韓國古地圖의 發達", 『海東地圖』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5), 12~13쪽.

7) 배우성, 『조선후기 국토관과 천하관의 변화』 (일지사, 1998).

하고 있다.

선행 연구들은 대체로 〈천하도〉의 윤곽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보아 왔다. 그러나 〈천하도〉가 조선후기 사회의 역사적 산물인 한 조선후기 문화와 사상, 세계관과의 관련 속에서 파악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천하도〉와 서구식 세계지도의 관련성에 주목한 윤노의 견해는 타견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남는다.

그는 우선 〈천하도〉의 원형 구성이 방형의 땅을 가상한 동양 전래의 관념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단원형 세계지도로부터의 영향을 인정했다. 『삼재도회』에 실린 마테오리치의 〈산해여지전도〉가 〈천하도〉라는 이름의 지도로 활용된 사례도 확인되었다. 그는 또 단원형 세계지도에 구부러진 형태로 묘사된 여러 대륙들이 태평양과 인도양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으로부터 〈천하도〉의 외대륙의 이미지가 연상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⁸⁾

윤노의 흥미 있는 가정에도 약점은 있다. 그는 〈천하도〉의 윤곽, 특히 중앙대륙의 윤곽이 어떻게 그려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다. 그는 다만 〈천하도〉가 단원형 세계지도에 의해 ‘축발’ 되었다고만 말할 수 있을 뿐이었다. 이에 대해 Ledyard는 중앙대륙의 윤곽이 이론적이거나 상상적인 모델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⁹⁾

윤노는 또 〈천하도〉가 反서학적 분위기 속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安鼎福(1712~1791), 李獻慶(1719~1791), 愼後聃(1702~1761) 등 反서학적 실학 지식인 중 일부가 지구구체설과 단원형 세계지도에 대항할 수 있는 세계지도를 만들기 위해 도교적·신선적 세계상을 도형화했다는 것이다.¹⁰⁾

안정복이 『천하고』와 『천학문답』을 쓴 것은 동료 후학들이 천주교에 빠져들던 풍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종교를 제외한 학문의 영역은 엄밀한 의미에서 비난의 대상이 아니었다. 안정복은 서양 선교사가 동양사회에 소개한 천문역법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었으며¹¹⁾ 일본의 지리를 논하면서 서구식 세계지도를 중요한 근거로 활용하기도 했다.¹²⁾

서구의 천문지리 지식에 대한 실학자 일부의 비판적 견해는 신후담에게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그는 『직방외기』에 대해 논평하면서 지리적 문화적 차원에서 중국을 중심에, 서

8) 海野一隆, 1981, pp. 29~30.

9) Gari Ledyard, “天下圖의 유래에 대하여”, 『문화역사지리』 7(1995), 25쪽.

10) 海野一隆, 1981, pp. 32~33.

11) 安鼎福, 『順菴集』 권17, 雜著, 天學考 (민족문화추진회 번역본 3책, 218~227쪽). 이하 이 글에서 사용되는 번역본은 별도의 표시가 없을 경우 민족문화추진회의 번역본이며, 원저 뒤 괄호 안에 표시하기로 한다.

12) 安鼎福, 『順菴集』 권19, 說, 倭國地勢說 (번역본 4책, 109~111쪽).

양을 주변에 두었다. 그는 유럽 대륙이 중국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을 무시하지 못하면서도, 서양인들의 경험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서구식 세계지도의 의미를 평가절하했다.¹³⁾

서구식 세계지도에 대한 신후담의 결론은 “(내버려)두고 논하지 말자(存而不論)”는 것이었다. 그것은 동양사회가 확인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 보여왔던 전통적인 반응이었을 뿐만 아니라 반서학적 분위기 속에서 도출될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이었다. 넓은 세계의 존재는 참인지 거짓인지의 여부조차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런 상태에서 서구식 세계지도에 대항할 도교적 세계지도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은 전혀 생기지 않는다. 그들 반서학적 실학 지식인이 필요했던 것은 오히려 전통적인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지도일 뿐이었다. 더구나 <천하도>는 중국 중심의 직방세계를 벗어나 있으며, 중국은 중앙대륙 안에서 치우친 곳에 자리잡고 있을 뿐이다.

윤노가 <천하도>에 대해 강조한 또 한 가지는 <천하도>에 실린 도교 계통의 단어들이다. 그는 신선세계에 대한 동경심, 혹은 ‘풍수와 같은 미신’이 <천하도>를 유행시킨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도교적 세계관이 조선후기 지식인들 사이에서 삼백년 간을 풍미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더구나 구사된 단어들만으로 <천하도>가 신선적 세계관을 표현한 것이며, 또 그렇게 받아들여졌을 것이라고 미리 단정할 이유는 없다. 도교 계통의 문헌들은 養生說의 쇠퇴와 함께 이단서적으로 간주되었으며, 도교적 세계관은 <천하도>를 통해 세상을 들여다보던 지식인들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했다. 따라서 원전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무관하게 이 단어들이 <천하도>에 채택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요구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를 우선 확인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글은 조선후기 사회의 사상적 문화적 풍토 위에서 <천하도>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천하도>가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천하도> 독자들은 이 지도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었는가? <천하도>의 윤곽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천하도>의 윤곽과 이미지는 반서학적 분위기의 산물이 아니라 서구식 세계지도, 특히 단원형 세계지도로부터 직접적으로 기원한 것이었다. <천하도>는 단원형 세계지도에 대한 조선적 해석의 산물이었으며, 조선후기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안내서였다. 그들은 암호처럼 보이는 서구식 세계지도의 이미지를 <천하도>를 통해 이해해 나갔다.

13) 李元淳, 『朝鮮西學史研究』(一志社, 1986), 293~295쪽.

2. 서구식 세계지도의 도입

1) 단원형 세계지도

조선에 들어온 서구식 세계지도는 크게 단원형 세계지도와 양반구형 세계지도로, 형태상으로는 병풍과 책자로 구분될 수 있다. 조선이 처음으로 보게 된 서구식 세계지도는 단원형 세계지도인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1552~1610)의 <곤여만국전도>였다.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서 만든 지도는 크게 세 종류였다. <여지산해전도>(1584년), <산해여지전도>(1600년), <곤여만국전도>(1602년)가 그것이다.¹⁴⁾ 그 가운데 조선에 수입되어 전통적인 세계관에 충격을 던져 준 것은 단연 <곤여만국전도>였다.

1603년 사신으로 명나라에 다녀 온 李光庭(1552~1627)과 權愷(1547~1624)가 북경에서 간행된 마테오 리치의 <곤여만국전도>를 홍문관에 보내 왔다. 당시 홍문관의 책임자였던 이수광은 6폭 병풍 속에서 넓은 세계를 보았다. 이수광이 보았던 <곤여만국전도>는 실물을 확인할 수 없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그린 8폭의 <(회입)곤여만국전도>(1708년)가 서울대 박물관에 전하고 있다. 당시 병풍 제작을 주관한 崔錫鼎(1646~1715)의 서문에 따르면 이 지도는 아담 샬(Adam Schall von Bell, 중국명 湯若望)의 천문도¹⁵⁾와 함께 한 벌로 모사되었다고 한다.

1602년판 <곤여만국전도>는 북경에서 2벌의 목판으로 만들어졌지만 중국인들의 폭발적인 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웠다. 1603년 李應試는 <곤여만국전도>보다 더 큰 판형의 목판을 새기고 그 이름을 <양의현람도>라고 불렀다. 8매의 목판으로 되어 있는 점, 구중천설이 십일중천설로 바뀐 것 등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곤여만국전도>와 동일하다. 黃中允에 의해 조선에 수입된 <양의현람도>는 현재 숭실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마테오 리치의 뒤를 이어 중국 땅을 밟은 알레니(Giulio Aleni, 중국명 艾儒略, 1582~1649)도 마테오 리치가 그랬던 것처럼 서양 천문지리지식을 중국에 소개했다. 북경에 들어온 알레니는 1623년 <만국전도>를 제작했다.¹⁶⁾ 1630년 북경에 사신으로 갔던 정두원

14) 鮎澤信太浪, “マテオリツチの世界圖に關する史的硏究”, 『横浜市立大學紀要』 A-4, No 18(1953), pp. 14~16; 盧禎植, 『韓國의 古世界地圖』 (대구교육대학교, 1998), 40~41쪽.

15) 아담 샬의 천문도는 <적도남북총성도>이다. 자세한 설명은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 『우리의 과학문화재』 (1994), 16~17쪽 참조.

16) 盧禎植, 1998, 74~79쪽.

은 화포, 망원경, 자명종 등 각종 서양 문물을 가지고 귀국했는데,¹⁷⁾ 그 가운데에는 <만국전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조선에 들어온 <만국전도>는 현재 남아 있지 않지만, 그것을 베껴 그린 대형 지도가 <천하도지도>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다.¹⁸⁾

대형 병풍 지도 이외에 책자 속에서도 단원형 세계지도가 소개되었다. 책자에 들어있는 지도는 소략한 한계가 있지만, 열람의 범위 면에서 강점이 있었다. <곤여만국전도>를 들여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조선 지식인들은 『삼재도회』¹⁹⁾라는 책자를 들여와 볼 수 있었는데, 거기에는 마테오 리치의 또 다른 세계지도가 들어 있었다. 그것은 마테오 리치가 1600년에 난징에서 간행한 <산해여지전도>였다. <산해여지전도>는 <곤여만국전도>보다 2년 앞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책자 안에 들어 있어서 소략함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삼재도회』의 <산해여지전도>는 더 많은 사람이 서구식 세계지도를 접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명나라 때 만들어진 주제별 분류서 가운데 『도서편』이 있다. 이 책은 1613년에 章潢이라는 인물이 편찬한 일종의 백과전서인데, 『삼재도회』와 함께 조선에 수입되어 널리 읽혔다. 그런데 『도서편』에 실려 있는 도형 가운데에는 마테오 리치의 지도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여지산해전도>가 포함되어 있다. 마테오 리치가 1584년에 만든 <여지산해전도>와 같은 제목의 지도이다.

알레니도 책자 속에 세계지도를 넣어 간행했다. 그가 펴낸 『직방외기』 각 권에는 대륙별 지리와 문화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세계지도인 <만국전도>와 대륙별 지도가 실려 있다.²⁰⁾ 『직방외기』는 鄭斗源(1581~?)에 의해 조선에 수입되었으며 서양 학문과 종교에 관심을 둔 사람들 사이에서 폭넓게 읽혔다.

2) 양반구형 세계지도

1658년 벨기에 출신의 선교사 페르비스트(Ferdinand Verbiest, 중국명 南懷仁, 1623~1688)가 동방전도를 위해 마카오에 도착했다. 페르비스트는 1672년에 『곤여도설』을 간행하고, 2년 후에는 <곤여전도>를 목판에 새겼다.²¹⁾ <곤여전도>는 동양에 소개된 최초의 양반구형 세

17) 李元淳, 1986, 57~58쪽.

18) 정조시대의 대표적 관찬지도집이라고 할 수 있는 『여지도』(서울대학교 규장각, 古 4709-78)에 들어 있다.

19) 1609년을 전후한 시점에 명나라 사람 왕기(王沂)가 편찬한 책으로, 天文 4권, 地理 16권, 人物 14권 등 총 10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20) 李元淳, “朝鮮實學知識人の 漢譯西學書 理解”, 『한국의 전통지리사상』(민음사, 1991), 16~19쪽.

21) 金良善, “明末清初 耶蘇會 宣教師들이 제작한 世界地圖와 그 韓國文化史上에 미친 影響”, 『崇大』 6(1961), 40~41쪽.

계지도였다. 1674년에 북경에서 초판이 간행된 이 지도는 1856년에 광둥에서 다시 간행되었다. 숭실대 박물관에 소장된 〈곤여전도〉는 조선에서 새겨진 광둥판 8폭 병풍형 세계지도이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양반구형 세계지도는 조선 사회에 본격적으로 보급되었다. 이 때 새로 들어온 양반구형 세계지도는 중국인 莊廷數가 1800년에 만든 〈지구전후도〉였다. 崔漢綺(1803~1875)는 1834년에 김정호의 도움으로 장정부의 세계지도를 목판으로 간행했다. 이 지도는 목판본 병풍지도, 필사본 병풍지도, 지구의 등 다양한 형태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²²⁾ 장정부의 세계지도를 활용한 것 가운데에는 경위도와 남북아메리카를 삭제한 구대륙 중심의 세계지도도 확인된다.²³⁾

양반구형 세계지도는 다시 책자 속에 수록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었다. 최한기는 1857년에 펴낸 『지구전요』에 〈지구전후도〉와 같은 유형의 지도를 삽입함으로써 양반구형 세계지도를 널리 인식키는 데 기여했다.

3) 단원형 세계지도와 양반구형 세계지도의 차이

서구식 세계지도는 한역 서학서와 더불어 조선후기 지성계에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한역 서학서들은 서학에 대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식인사회에서 널리 읽혔다.²⁴⁾

서구식 세계지도는 대형 병풍이라는 형식상의 문제로 인해 열람이 용이하지 못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실학자들은 이들 서구식 세계지도를 열람하고 있었고, 또 그 문제의식을 이해해 나갔다. 『삼재도회』나 『도서편』, 『직방외기』의 지도들은 열람이 용이한 책자 속에 들어 있어서 좀 더 많은 독자들에게 읽혔다. 이미 17세기 초에 이수광은 마테오 리치가 남경에서 펴낸 〈산해여지전도〉가 『삼재도회』에 수록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²⁵⁾

17, 18세기 조선에서 병풍이나 책자로 널리 유포된 서구식 세계지도는 단원형이었다. 물론 양반구형 세계지도인 페르비스트의 〈곤여전도〉가 1722년(경종 1)에 『곤여도설』과 함께 수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²⁶⁾ 남인 실학의 태두인 李瀾(1681~1763)은 페르비스트의 『곤여도설』을 열람한 바 있었다.²⁷⁾ 그러나 현재로서는 19세기 이전에 〈곤여전도〉 자

22) 李燦, 『韓國의 古地圖』(범우사, 1991b), 382~383쪽.

23) 李燦, 1991b, 341~342쪽.

24) 李元淳, 1986, 49~107쪽.

25) 李晔光, 『芝峰類說』, 諸國部.

26) 金良善, “韓國古地圖研究抄”, 『崇實史學』 10(1965), 115~127쪽; 楊普景, “대동여지도를 만들기까지”, 『韓國史市民講座』 16(1995), 110쪽.

제가 널리 보급된 흔적을 찾기 어려운 형편이다. 양반구형 세계지도는 장정부의 <지구전후도> 이후로 본격 보급되기 시작했다.

17, 18세기에 양반구형 세계지도가 널리 보급되지 않은 것은 우연적인 현상만은 아니었다. 단원형 세계지도와 양반구형 세계지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후기에 들어온 대부분의 단원형 세계지도는 표준경선을 태평양 상에 둬으로써 아시아 대륙이 지도의 중심에 오도록 배려되어 있다. 그것은 마테오 리치, 알레니 등 단원형 세계지도의 제작자들이 중국 중심의 세계관과 타협한 결과였다.²⁷⁾ 물론 단원형 세계지도에 묘사된 중국의 위치는 정확하게 도면의 중심부에 오지는 않는다. 그러나 신구대륙 모두를 한 장의 도면에 묘사한 것으로는 최선의 결과이기도 한 것이었다. 동양사회에 소개된 단원형 세계지도에는 중심과 주변의 관념이 편의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페르비스트의 <곤여전도>, 장정부의 <지구전후도> 등 양반구형 세계지도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양반구형 세계지도는 중심과 주변을 설정하는 것이 처음부터 무의미한 지도이다. 중원대륙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중화관은 물론, 아시아를 도면의 중앙에 배치하는 것조차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양반구형 세계지도에서 동아시아는 동반구의 한쪽 귀퉁이에 자리잡고 있을 뿐이다.

3. 단원형 세계지도에 대한 동양적 이해

1) 조선후기 사상계의 동향

조선사회에서 17세기는 서구식 세계지도 뿐만 아니라 <천하도>가 폭넓게 보급되기 시작하는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또 신선설의 대두, 명칭교체에 따른 중화관념의 변화 등 다양한 사상의 흐름이 존재하고 있었다. 조선후기 사상계의 흐름은 서구식 세계지도나 <천하도> 등 당시인들의 세계관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노장사상 혹은 신선설은 이미 16세기부터 주목받고 있었다. 曹植(1501~1572)과 徐敬德

27) 노대환, “정조시대 서기수용 논의와 서학정책”, 『정조시대의 사상과 문화』 (돌베개, 1999), 209~212쪽.

28) 마테오 리치의 타협은 이미 1584년에 肇慶에서 <여지산해전도>를 만들 때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1489~1546) 그리고 그들의 문하생들 사이에서 이런 경향이 이어지고 있었다.²⁹⁾ 16세기 중반에 조선에서 그려진 〈대명국도〉(천리대 소장)에는 원도에 해당하는 〈강리도〉에 없던 신선적 지명들이 수록되어 있다.³⁰⁾

17세기 초에는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 양생설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 李睟光(1563~1628)은 유학자이면서도 무위자연과 자기절제를 강조하는 도교의 양생설에 심취해 있었으며, 노자 장자의 글도 편견 없이 평가했다.³¹⁾ 그러나 개방적 학풍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신선설은 곧 조선중화주의의 대두와 함께 쇠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명이 쇠퇴하고 청이 부상하는 17세기 초, 조선은 청과의 전란을 피할 수 없었다. 전란 후 조선에서 북벌론과 존주론이 빈발하고 있을 때 대륙에서는 청이 급기야 중화국가로 여겨지던 명나라를 멸망시켰다.³²⁾ 청이 중원대륙을 차지하면서 조선은 자신만이 이 세계에서 남은 유일한 문화적 중화라고 여기게 되었다. 조선중화주의가 그것이다.³³⁾ 조선중화주의는 17, 18세기를 풍미하면서 조선후기 사상계의 주류를 형성했다.

조선중화주의는 성리학적 명분론의 또 다른 표현이었으며, 조선사회에서 중화와 이적,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문제는 비중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이수광의 노장적 취향은 이미 당대에 이단학문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³⁴⁾ 조식과 서경덕의 문하생들은 입지가 약화되면서 독자적인 그룹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조선중화주의의 대두와 함께 양생설이나 도교적 취향은 학문적으로 용인되지 못하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양생설은 조선이 서구식 세계지도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도교의 수련방식과 도교적 문헌은 양생설에 호감을 가진 일부의 지식인들에게 중국 중심의 세계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세계의 가능성을 환기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이수광이 〈곤여만국전도〉를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그의 개방적 학문관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수광의 사례는 도교적 세계관과 서구식 세계지도가 중국 중심의 전통적인 세계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서구식 세계지도는 조선중화주의적 사회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었을까? 조선중화주의가 중화문명이 유지되던 과거의 중원대륙을 의식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은 다름아닌 서구식 세계지도 때문이었다. 조선은 18세기 후반까지도 서구 과학과 문화

29) 신병주, 『남명학파와 화담학파 연구』 (일지사, 2000).

30) Gari Ledyard, 1995, pp. 23~26.

31) 韓永遇, “李睟光의 學問과 思想”, 『韓國文化』 13(1992), 380~393쪽.

32) 정옥자, 『조선후기 조선중화주의 연구』 (일지사, 1998), 9~25쪽.

33) 정옥자, 1998, 9~25쪽.

34) 韓永遇, 1992, 392쪽.

를 중국에서 기원한 것으로 이해하고 싶어했다. 중국기원설은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 이질적인 서구문명을 동양적 기준으로 이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이 때에 서구문명의 기원으로 설명되는 중국은 '증원대륙'에서 만들어진 '증화문명'을 의미했다. 문화적 증화로서의 조선은 현재형이었지만, 서구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혈연적 지리적 문화적으로 일치된 과거의 증화가 자연스럽게 연상되었던 것이다.

서구의 과학과 문화는 대부분 중국 성인들이 오래 전에 남긴 선지적인 명제를 답습하거나 구체화한 것으로 설명되었다. 그러나 서구식 세계지도에 관한 한 중국 성인들로부터 끌어다 설명할 근거가 거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 동양사회에서 비성리학적, 비정통적으로 간주되던 일부 서적만이 그것을 말해왔을 뿐이었다. 그것은 다름아닌 신선설 혹은 도교적 세계관을 표현한 서적에 등장하는 용어들이었다.

신선설과 조선증화주의는 여기에서 하나의 접점을 형성하게 된다. 신선설은 조선증화주의가 대두하면서 쇠퇴했지만, 중국적인 세계와는 다른 범주를 다루는 신선적, 도교적 문헌이 주목되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증화주의자들은 서구식 세계지도의 동양적 前例, 혹은 중국 기원을 신선적, 도교적 문헌의 용어들로부터 연상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연상 작용은 다른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2) 단원형 세계지도가 연상시킨 것들

중국에서 땅은 우주구조론의 일부로서 다루어지거나, 혹은 職方世界와 동의어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우주구조론 속에서 설정된 땅은 근본적으로는 중국 중심의 朝貢 권역인 직방세계와 논리적 연관성을 가지지 못했다. 하늘의 28수를 땅에 대응시켜 그 의미를 따지는 천문도와 分野說은 동양의 天地 상관적 전통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³⁵⁾ 양자를 매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양사회의 분야설에서 땅은 늘 직방세계와 그 주변을 의미했다. 결국 우주구조론의 일환으로 설정되었던 땅은 천문가의 영역에서, 직방세계와 관련된 땅은 직방씨의 영역에서 별개로 논의되어 왔을 뿐이다.

이러한 중국적 관념은 중국사회가 분야설을 포함한 지리적 증화관을 고집하고 있었던 데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곤여만국전도>는 중국적인 전통과는 상당히 다르게 구성되어 있었다. 중국 중심의 직방세계를 뛰어넘은 넓은 대륙과 萬國 그리고 대양의 윤곽이 그려진 도면의 여백으로는 測天法과 球體說 등 도면 작성의 이론적 배경에 대한 설명문이 다수

35) 吳尙學, "傳統時代 天地에 대한 相關的 思考와 그의 表現", 『문화역사지리』 11(1999).

포함되어 있었다. 〈곤여만국전도〉는 도면과 설명문이 한 묶음으로 받아들여졌다.

중국에서 〈곤여만국전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황명직방지도〉의 편찬자 陳祖綬가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였다(1636년). 진조수가 〈황명직방지도〉를 간행한 것은 여러 차례에 걸쳐 중간되어 온 나홍선의 〈광여도〉를 비판하기 위해서였지만, 그 저변에는 〈곤여만국전도〉의 존재가 강하게 의식되고 있었다. 〈황명직방지도〉의 서문에 실린 지도 간행의 동기를 살펴보자.

진조수는 지도가 직방씨의 관장 사항이며, 직방세계와 그 주변을 표시한 전통적인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조수의 관념에서는 땅의 극점(땅끝) 혹은 지구적 규모의 대륙을 묘사하는 것은 지도제작자의 일이 아니었다.³⁶⁾

마테오 리치의 존재와 〈곤여만국전도〉의 도면 부분은 보기에 따라서 중국 중심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곤여만국전도〉는 중국을 작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중국 주변의 넓은 땅을 보려는 것이며, 중국에 대한 유럽의 조공, 즉 직방세계로의 편입이 마테오 리치의 존재로 증명되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다.³⁷⁾ 중원대륙에 붉은 글씨로 쓰여진 ‘大明一統’ 네 글자는 이러한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가정 하에서라면 〈곤여만국전도〉는 직방세계를 넘어선 넓은 세계가 아니라 새롭게 편입된, 혹은 얼마 안 있어 편입될 직방세계의 넓은 외연으로 얼마든지 간주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의 여지는 지리적 중화관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서학론자들의 편법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직방세계를 중시하면서 〈곤여만국전도〉를 거부하는 反서학론자들에게는 걸리기 쉬운 덫이자 빠지기 쉬운 유혹이었다.³⁸⁾

그러나 진조수는 이 논리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했다. 그는 직방세계 외연의 확장을 명분으로 〈곤여만국전도〉를 인정하는 것은 중국적인 前例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역사에서 추연의 구조설과 수해가 잦다는 땅의 범위에 관한 설들이 직방세계의 확장된 외연으로 인정된 적이 없었음을 상기시키고, 마테오 리치와 〈곤여만국전도〉를 그것에 비유했다.³⁹⁾

진조수가 전통적인 직방세계의 범위를 벗어나는 넓은 지역을 지도로 묘사하는 데 반대

36) 陳祖綬, 〈皇明職方地圖〉의 序文: 余當代之臣也 職則職方 職方氏之掌惟地圖 弗敢出乎地之利圖之外也 (船越昭生, “坤輿萬國全圖と鎖國日本—世界的視圖の成立”, 『東方學報』 41(1970), 625쪽에서 재인용).

37) 마테오 리치의 서문에는 그러한 자의적 해석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구절이 담겨 있다. 〈坤輿萬國全圖〉(서울대학교 구관도서, 古4709-35: 李之藻가 1602년에 각판한 京都大學 소장본의 사진이다. 이하 같음) 萬曆壬寅利瑪竇序: 敝國雖恒而恒重信史 (중략) 竇也 踰伏海邦 竊慕中華大統萬里聲教之聲 浮槎西來.

38) 陳祖綬, 〈皇明職方地圖〉의 序文: 或曰 子以是(皇明職方地圖:筆者)爲足以盡地之圖乎 泰西氏之言 其不足信與 夫西學 非小中國也 大地也 地大則見中國小 (中略) 而子不以此廣之職方. 曰不然 (船越昭生, 1970, pp. 625~626).

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곤여만국전도>와 땅의 위상에 대한 그의 관점이다. 진조수는 위 흑자의 논의에서 보듯 <곤여만국전도>를 극점(땅끝)을 묘사한 전형적인 사례로 보고 있었다. 추연이 말한 9주의 세계나 수해가 걸어서 잣다는 땅의 끝은 전통적인 직방세계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실존 여부와 도달 가능성에 대해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땅이었다.

<곤여만국전도>에 표현된 오대주는 사실상 지리적 시야의 확대를 가능하게 해 준 것이지만, 진조수는 그것을 論天家의 주장에 가까운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³⁹⁾ 추연과 수해의 주장은 중국에서 확대된 직방세계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우주구조론적인 배경 위에서 땅의 위상을 논하는 것은 직방씨가 관장해야 할 사항이 아니며 지도의 영역에서 표현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진조수는 <곤여만국전도>에 대해 ‘두고서 논하지 말자’는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했다.

<곤여만국전도>를 직방세계 외연의 확장으로 해석함으로써 확대된 지리적 중화관을 고집할 수도 있었을 진조수가 이런 해석을 거부한 데에는 <곤여만국전도>의 설명문이 우주구조론을 넘나들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곤여만국전도>에 묘사된 오대주의 윤곽으로부터 天球가 연상된 것은 아니었다. 문제는 지도의 여백에 빼곡이 들어찬 각종 설명문에 있었다. 「총도서문」에서 마테오 리치는 ‘하늘이 땅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서로 응한다’고 전제하고, 천구와 지구의 관계 그리고 구체설을 설명했다.⁴⁰⁾ 하늘과 땅은 감응관계나 직접적 연결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구체설에 입각해서 땅의 위상을 논한 마테오 리치의 설명문에는 당시 유럽의 천문지식이 반영되어 있었다.

마테오 리치의 중국인 친구들이 <곤여만국전도>에 실은 설명문에도 이런 입장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다. 李之藻는 ‘地度が 위로 天度에 응하는 것은 만세불변의 법칙이다’라고 천명했으며,⁴¹⁾ 마테오 리치의 <곤여만국전도>에 대해 ‘위로 天文을 취하여 地度に 견준 것’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⁴²⁾ 이지조의 친구인 祁光宗의 설명문에도 마테오 리치가 ‘地도로

39) 陳組綬, <皇明職方地圖>의 序文: 五大洲之說何居乎 以泰西氏之言 而直欲駕之皇古之四海九州也 我不敢知 然則周有鄠衍 衍天下有大九州 而周不以加之職方 夏有豎亥 步天下之東西二萬八千里 南北二萬五千里 而夏不以入之禹貢 西學之來 抑亦聖世之有鄠衍豎亥者乎 存而不論 可矣 (船越昭生, 1970, pp. 627~628).

40) 船越昭生, 1970, p. 628.

41) <坤輿萬國全圖>總圖序文: 天既包地 則彼此相應 故天有南北二極 地亦有之.

42) <坤輿萬國全圖>萬曆壬寅利瑪竇序: 我存李先生(李之藻:筆者)夙知輿地之學 自爲諸王編輯有書 深賞茲圖 以爲地度之上應天躔 乃萬世不可易之法.

43) <坤輿萬國全圖>李之藻序: 禹貢之內且然 何況絕域不謂. 有上取天文以准地度如西泰子萬國全圖者.

써 天圖에 응했다'는 표현이 보인다.⁴⁴⁾

진조수는 축척법과 구체설을 기반으로 땅을 논했다는 이유로 <곤여만국전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지조를 비롯한 서학론자들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곤여만국전도>의 우수성을 평가했다. 서학론자들의 논의에는 '직방세계 외연의 확대'라는 타협적인 수사조차 들어있지 않았다. 그들은 직방세계적 관념으로는 <곤여만국전도>의 도면과 설명문이 보여주는 천문지리 지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마테오 리치와 그를 인정하던 중국 지식인들은 곧이어 중국 고대의 우주구조론과 땅의 위상에 관한 논의들에 대해서도 평가를 시도했다. 그것은 어느 경우나 분야설이나 직방세계적 관념에서는 논의되지 않던 것들이었다.

마테오 리치 자신은 지구를 묘사하면서 우선 六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상하 사방의 개념인 육합은 사방의 개념보다 구체를 묘사하는 데 상대적으로 가까운 개념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구체에서 상하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아울러 지적했다.⁴⁵⁾ 오중명은 추연의 설을 '땅의 무한함'을 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거론하면서도, 바로 그 무한하다는 가정 때문에 추연의 주장이 마테오 리치 설의 동양적 전례가 되기에는 너무나 불합리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⁴⁶⁾

楊景淳도 수해, 태장, 육합을 거론했다. 양경순은 진조수가 논천가의 주장에 빗대었던 수해와 태장의 四極을 직방세계적 규모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대신 그가 주목한 것은 육합이었다. 그는 과거 중국의 저명한 지성들이 육합의 규모를 중시하지 않음으로써 넓은 세계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렸다고 비판하면서, <곤여만국전도>의 도면과 설명문이야 말로 '위로 極星에 應하고 아래로 地紀를 궁구' 하는 육합의 규모를 처음으로 밝힌 지도라고 보았다.⁴⁷⁾

중국 고대 천문가들의 주장을 가장 폭넓게 거론하고 그것을 마테오 리치의 경우와 대비한 인물은 李之藻였다. 이지조의 견해는 가탐의 지도에서 나홍선의 <광여도>에 이르는 중

44) <坤輿萬國全圖> 祁光宗題: 西泰子 遊覽諸國 經歷數十年 據所聞見 參以獨解 往往言前人所未言 至以地度應天圖 以讀天地之書 爲己之學.

45) <坤輿萬國全圖> 利瑪竇總圖序: 上下四方 皆生齒所居 渾淪一球 原無上下 蓋在天之內 何曠非天 總六合內 凡足所佇卽爲下 凡首所向卽爲上.

46) <坤輿萬國全圖> 欽人吳中明撰: 鄒子稱中國外如中國者九 神海還之. (중략) 夫地廣且大矣 然有形必有盡.

47) <坤輿萬國全圖> 蜀吏楊景淳識: 漆園氏曰 六合之內 論而不議 子思子亦曰 及至聖人 有所不知 天唯不知是以不議 然未嘗不論 未嘗不知也. 章亥之步地 所從來矣 禹貢之書 歷于九州 職方之載 罄乎四海 (중략) 而質之六合 皆且挂一而漏萬 孰有囊括苞舉六合如西泰子者 詳其圖說 蓋上應極星 下窮地紀 仰觀俯察 幾乎至矣.

국의 전통적 지도들이 가진 결함을 지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직선거리에 입각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전통적인 직방세계를 벗어난 바깥 세계를 그려본 적이 없다는 점이 그것이다.⁴⁸⁾ 이지조는 그러한 문제점을 일거에 해결한 것으로 마테오 리치의 測天法과 지구구체설을 평가했다.⁴⁹⁾

이지조는 이어서 측천법과 지구구체설의 동양적 전례가 있을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 『唐書』의 측천법, 원나라 때의 측천 사실 등이 거론되었다. 그러나 『唐書』의 측천법은 마테오 리치의 그것에 비해 너무나 소략한 것이며, 원나라 때의 측천 범위는 마테오 리치에 비해 훨씬 작은 것으로 평가되었다.⁵⁰⁾ 『주비경』에 대한 채옹의 설명, 혼천설 등도 마찬가지로의 사례로 거론되었다. 지구구체설과 유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구면의 곳곳에 사람이 사는 원리까지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지조는 결국 그런 한계가 중국 사회에서 ‘육합의 세계에 대해서는 두고서 논하지 않는다’는 전형적인 대응방식을 낳게 되었다고 지적했다.⁵¹⁾ 이지조는 수해, 태장의 사극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⁵²⁾

결국 과거 중국사회에서 우주구조론적인 차원의 땅에 관한 논의들은 지도와 지리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러한 중국적인 전통은 〈곤여만국전도〉의 동양적 前例를 설정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결국 〈곤여만국전도〉에 대해 진조수가 “버려두고 논하지 말자”고 말했을 때에도, 마테오 리치와 그의 중국인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그 의미를 설명했을 때에도 육합, 추연, 수해, 태장 등 동양 고전의 단어들은 신뢰받지 못했다.⁵³⁾

48) 〈坤輿萬國全圖〉李之藻序：輿地舊無善版 近廣輿圖之刻本 唐賈南皮畫寸分里之法 稍似縝密 (중략) 軒路出紆迴 非合應弦之步 是以難也。禹貢之內且然 何況絕域不謂。

49) 〈坤輿萬國全圖〉李之藻序：有上取天文以准地度如西泰子萬國全圖者。(중략) 而取里則古今遠近稍異云。其南北則徵之極星 其東西則算之日月 衡食種種 皆千古未發之秘。

50) 〈坤輿萬國全圖〉李之藻序：元人測景雖遠 止于南北海二萬里內 (중략) 古人測景 曾有如是(西泰子：筆者)之遠者乎。

51) 〈坤輿萬國全圖〉李之藻序：所言地是圓形 蓋蔡邕釋周髀 已有天地各中高外下之說 渾天儀注 亦言地如鷄子中黃 孤居天內 其言各處晝夜長短不同 則元人測景二十七所 亦已明載 惟謂海水附地 共作圓形 而周圍俱有生齒 頗爲創聞可駭 要于六合之內 論而不議 理苟可據 何妨求野圖象之昭昭也。晝視日景 宵窺北極 所得離地高下度數 原非隱僻難窮 而人有不及察者 又何可輕議于方域之外。

52) 진조수가 천문가의 논의로 치부했던 수해와 태장의 사극에 대해 이지조는 마테오 리치가 여행하며 측정한 곳이 수해와 태장의 범위를 넘는다고 말했다(〈坤輿萬國全圖〉李之藻序)。

53) 진조수는 전통적인 수해와 태장의 사극을 비롯해 직방세계를 벗어난 모든 논의를 논천가의 영역으로 돌렸다. 그러나 이지조와 양경순에게 수해와 태장의 사극은 직방세계의 공간적 범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좁은 땅일 뿐이었다. 오증명은 추연의 9주설을 합리적이지 못한 것으로 비판했다. 마테오 리치와 이지조, 그리고 양경순은 동양 고전의 단어들 가운데 오직 육합을 〈곤여만국전도〉의 규모에 비유했다. 그러나 상하 사방의 개념인 육합은 지극히 제한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었다. 구체에서 상하의 관념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사실이 이미 마테오 리치 자신에 의해 언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에서 육합, 추연, 수해, 태장 등의 단어들은 거의 신뢰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후기 지식인들의 관심은 다만 넓은 세계와 구체설에 대한 동양적 근거를 설정할 수 있느냐에 있었다. 그런 면에서 뒤에 노론사대신으로 불리게 된 李爾命(1658~1722)의 경우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이명은 서구식 세계지도를 열람한 뒤, 의문나는 점을 궤글러(I. Koegler, 중국명 戴進賢)에게 문의했다. 이이명이 질의한 핵심은 축천법과 구체설의 동양적 전례가 분명치 않다는 것이었다. 동양의 천원지방설은 서양의 지구설과 일치하지 않으며, 천도로써 지리를 확정하는 것은 혼천설에서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혹 서양인들이 도교 계통의 서적인 『十洲記』나 불교계의 四大洲說을 듣고 축천법과 구체설을 주장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⁵⁴⁾

이이명이 서구식 세계지도를 보고 가장 먼저 넓은 세계의 실체를 묻지 않은 것은 의외이다. 그러나 그가 넓은 세계를 직방세계가 새롭게 확장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면 큰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그의 관심은 단원형 세계지도의 설명문에 쓰여 있는 축천법과 구체설에 있었다. 그는 다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간주하던 동양적인 전례가 분명치 않다는 점을 의아하게 볼 뿐이었다. 이이명의 사례는 서구식 세계지도, 특히 단원형 세계지도가 조선에서 그 동양적 前例를 말해주는 단어를 통해 이해되고 있었음을 시사해 준다.

최석정도 〈곤여만국전도〉가 기존의 세계지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최석정은 왕에게 〈곤여만국전도〉를 모사해 올리면서 이 지도가 터무니없고 불경스럽다고 말하면서도, 그 설이 전수되어 온 사실을 쉽게 부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두어 권문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⁵⁵⁾

박학함으로 명성을 얻고 있던 최석정으로서도 〈곤여만국전도〉에 실린 축천법과 구체설에 대한 설명문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최석정은 이 암호같은 지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동양 고전의 단어들을 떠올렸다. 연상된 단어들은 六合, 裊海, 豎亥, 太章 등이었다. 이들 단어들에 대한 최석정의 태도에서 중국 지식인들이 보여준 일차적인 거부반응이나 불합리성에 대한 비판은 엿보이지 않는다. 최석정은 〈곤여만국전도〉의 도면과 설명문에 대해 중국의 성인들이 ‘두고서 말하지 않은’ 육합의 세계를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와 같은 차원에서 추연의 구주설과 수해 태장의 4극설을 이해했다.⁵⁶⁾

최석정이 연상한 단어들은 중국에서 거론된 단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낯선 문화와 지식은 조선과 중국에서 동일한 단어로 표현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결과이다. 최석정도

54) 黃胤錫, 『頤齋亂藁』 권18, 起辛卯四月 止同年十月, 七月初三日辛丑(정문연 탈초본 3책, 765쪽). 疎齋與西洋人蘇霖戴進賢書.

55) 배우성, 1998, 374~375쪽.

56) 崔錫鼎, 『明谷集』, 論泰西坤輿.

이들 동양 고전의 단어들이 마테오 리치와 그의 중국인 친구들에 의해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곤여만국전도>의 설명문을 통해 알고 있었다. 그러나 최석정은 어떻게든 자신이 연상한 이 단어들을 통해 <곤여만국전도>를 이해해 보려 노력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최석정이 떠올린 이 단어들의 원전은 무엇이며, 또 조선후기 독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일까?

4. 동양 고전과 <천하도>

1) 육합, 구주, 수해, 태장과 『회남자』

구주와 육합, 수해, 태장 등의 용어는 『회남자』에서 발견된다. 육합은 12간지를 배합한 방위 개념으로도 사용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상하와 사방을 의미하는 용어로 이해되었다. 육합의 개념을 집중적으로 다룬 책은 중국 고대의 천문 지리서인 『회남자』인데⁵⁷⁾, 이의도 육합의 문헌적 근거를 『회남자』에서 찾은 바 있다.⁵⁸⁾

마테오 리치는 상하 사방으로 구성된 땅을 가정한 육합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았다. 육합으로는 지구를 설명할 수 없으며 구체에서 상하를 설정하는 것도 무의미하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육합의 개념으로는 구체 곳곳에서 사람이 하늘을 이고 산다는 사실을 전혀 설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육합은 넓은 세계가 평면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동양적 전례로서는 거의 유일한 단어였으며, 최석정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회남자』 鑿形訓에 등장하는 천지 구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땅은 상하 사방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四極의 안쪽이다. 사극은 구체적으로 우임금이 수해와 태장을 시켜 재게 했다는 범위이다. 우임금이 태장으로 하여금 동극에서 서극까지 걷게 했더니 2억 33,500리 75보가 되었고, 수해로 하여금 북극에서 남극으로 걷게 했더니 2억 23,500리 75보가 되었다는 것이다.⁵⁹⁾

사극 안에는 동서로 28,000리, 남북으로 26,000리가 되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회남자』에서는 '사해의 안쪽'으로 설명된 이 지역을 17세기의 유학자 김수홍은 '해내의 지면'이라

57) 劉安, 『淮南子』, 原道訓.

58) 李瀛, 『성호사설』 권28, 詩文門, 六合 (국역 『성호사설』 9책, 26~27쪽).

59) 劉安, 『淮南子』, 鑿形訓.

고 표현했다.⁶⁰⁾ 즉 땅은 사극으로 포괄되어 있으며, 그 안쪽에 '사해로 쌓인 지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해내의 지면인 구주⁶¹⁾ 밖으로 팔연, 팔굉, 팔극의 땅이 펼쳐진다. 팔연의 기운은 구주에 비를 내리고, 팔굉의 기운은 한서를 결정하며, 팔극의 기운은 천하에 비를 내린다.⁶²⁾

결국 『회남자』에서 묘사된 땅은 사해 내의 지면, 사해, 사극(팔극)으로 이어지는데, 사극(팔극)에서 천하의 개념이 비로소 성립한다. 사극이 땅의 경계인 한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구주로부터 사해를 건너가지 않으면 안된다. 『회남자』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사극(팔극)이 곧 사해 밖의 또 다른 대륙으로 간주될 수 있는 소지가 여기에 있다.

2) 비해와 추연의 세계관

구주와 비해, 특히 비해는 중국 고대 추연의 세계관에서 등장하는 표현이다. 추연은 중국인들이 알고 있던 세계는 전체 세계의 동남방에 있는 하나의 주에 불과하며, 전체 세계에는 그와 같은 주 8개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추연에 의하면 각기 하나의 주는 裊海라는 바다가 사방을 둘러싸고 있으며, 전체 9주의 밖에는 다시 瀛海라는 이름의 바다가 감싸고 있다는 것이다.⁶³⁾

조선후기 유학자 李種徽(1731~?)는 마테오 리치의 단원형 세계지도를 본 후, 남극과 분리되지 않은 가상의 대륙과 아프리카를 제외하고, 아시아, 유럽,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가 모두 주변의 바다로 감싸여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⁶⁴⁾ 그것은 그가 단원형 세계지도의 윤곽을 추연의 세계관으로 끌어다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이종휘는 추연의 세계관을 소개하고는, 아시아를 둘러싼 소양해는 추연이 말하는 비해중 하나이며, 대양해는 추연의 영해라고 주장했다. 그래도 문제는 남았다. 추연의 세계관과 일치하려면 9대륙이 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이종휘는 마테오 리치가 나머지 3대륙도 알고 있었을 것이나, 추연이 죽은 지 2,000년이 넘어서 그의 학문이 제대로 계승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단정했다.⁶⁵⁾ 조선후기 민간의 지식인들은 단원형 세계지

60) 金壽弘, <天下古今大摠便覽圖>.

61) 東南의 神州, 正南의 次州, 西南의 戎州, 正西의 兪州, 正中의 冀州, 西北의 台州, 正北의 濟州, 東北의 薄州, 正東의 陽州 등 총 9주인데, 신주적현과 기타 8주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62) 劉安, 『淮南子』, 墜形訓.

63) 『古今圖書集成』, 曆象彙編 乾象典 제4권, 天地總部, 王充의 論衡編.

64) 李種徽, 『修山集』 권4, 記, 利瑪竇南北極圖記.

65) 李種徽, 『修山集』 권4, 記, 利瑪竇南北極圖記.

도의 설명문에 기재된 측천법과 구체설에 관한 논의를 天學의 일환으로 간주했으며, 천학의 동양적 전례로 흔히 추연을 떠올렸던 것 같다.⁶⁶⁾ 크게 본다면 이러한 경향은 서화에 대한 중국원류설과 같은 차원의 논리라고 할 수 있다.

3) 수해, 육합과 『산해경』의 세계

『산해경』은 중국 고대의 신화서 혹은 지리서로 알려진 책이다. 권1~권5의 「산경」, 권6~권13의 「해경」, 권14~권18의 「대황경」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석정이 떠올린 여러 단어 가운데 수해, 육합 등이 역시 『산해경』에 있다.

『산해경』 「해경」(해내동경)에는 수해가 잦다는 동극과 서극의 거리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다.⁶⁷⁾ 수해에게 동서극을 재계 한 주체가 직방세계를 상징하는 우임금이라는 설이 소수 견해로, 天帝라는 설이 다수 견해로 소개되어 있다. 「해경」의 첫머리인 해외남경에는 땅이 육합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사해 안에 있다는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⁶⁸⁾

「해경」은 해내와 해외가 사면으로 구분되며, 해내와 해외는 또 각각 서로 대칭되는 동서 남북의 작은 네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대황경」은 해내경이 중앙에 놓여 있으면서 사방으로 대황이 둘러싸고 있는 구도이다. 「산경」의 저자는 중심과 네 주변이라는 지리적 구도를 설정했고, 「해경」의 저자는 세계의 안과 밖을 대칭 구조 속에서 밝혔으며, 「대황경」의 저자는 안팎의 구분을 넘어서 안팎 사이의 거리를 강조했다. 「대황경」은 인식된 땅의 끝이다.⁶⁹⁾

세계의 범위에 대한 인식은 「해경」과 「대황경」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해경」의 작자는 육합의 구조 속에서 사해로 둘러싸인 땅을 생각했고, 「대황경」의 작자는 대황의 안팎으로 해내와 사해를 설정했다. 「산경」, 「해경」, 「대황경」은 각각 저술된 시기의 역사적 상황과 작자의 세계인식을 반영한다.⁷⁰⁾ 엄밀한 의미에서 작자들이 구상한 것은 중국을 중심으로

66) 안정복은 혹자의 질문을 빌어 天學의 동양적 전례로 추연을 거론했다. 그러나 안정복은 알레니의 『직방의기』를 보고 천학에 대한 그 나름의 식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단원형 세계지도와 추연의 논의가 정확하게 들어맞지는 않는다고 보았다(安鼎福, 『順菴集』 권17, 雜著, 天學問答: 번역본 『순암선생문집』 제3책, 231쪽).

67) 『산해경』, 해내동경: 鄭在書 譯註, 『山海經』 (民音社, 1993), 254쪽.

68) 『해경』의 四海는 『회남자』에서 四極으로 바뀌어 있다. 『회남자』에서 사극은 사해보다 훨씬 바깥쪽의 땅끝이다.

69) 徐敬浩, 『山海經研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96~101쪽.

70) 徐敬浩, 1996, 168~174, 231~239쪽.

한 세계였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산해경』 원작자들의 의도나 세계관이 아니다. 단원형 세계지도를 본 조선후기 지식인들이 연상한 『산해경』의 구조가 무엇인가가 문제의 핵심이 될 것이다.

조선후기 지식인들은 『산해경』을 하나의 일관된 저술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 경우 「산경」, 「해경」, 「대황경」의 세부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산해경』의 세계는 하나의 체계로 정리되지 않으면 안된다.⁷¹⁾ 『산해경』의 큰 구도인 「산경」, 「해경」, 「대황경」을 땅과 바다의 관계로 본다면 중앙대륙과 외대륙 사이에 해내와 해외로 구분되는 바다가 있으며 대황의 끝에 다시 바다가 있는 구도가 된다. 중앙대륙과 바다, 외대륙은 전체적으로 중심과 주변의 관계에 있으며, 각각의 구성요소는 또 그 안에 중심과 주변의 구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⁷²⁾

4) 『회남자』, 『산해경』, 추연의 세계관과 <천하도>

조선후기에 널리 유포되었던 목판 지도책에는 낮 설은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원형 <천하도>가 수록되어 있다. <천하도>는 판본에 따라서 미세한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다.

<천하도>는 가면모양의 중앙대륙(내대륙), 중앙대륙을 감싸고 있는 안쪽의 바다(내해), 그리고 안쪽의 바다를 감싸고 있는 바깥쪽의 대륙(외대륙), 외대륙 밖의 바다(외해)가 있고, 해와 달이 뜨고 지는 곳이 그 바깥에 있다. 나라 이름, 산천 이름 등 140여개가 넘는 지명들이 지도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조선후기 지식인들이 『회남자』, 추연의 세계관, 『산해경』 등 동양의 고전들을 떠올리게 된 계기는 단원형 세계지도였다. 단원형 세계지도의 도면과 설명문은 동양 고전의 단어들로 재해석되었는데, <천하도>는 이들 동양고전들을 활용해 서구식 세계지도에서 받은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후기 지식인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천하도>의 구성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동양고전은 없다.

『회남자』에서는 신주적현을 포함한 구주로부터 동심원의 바깥쪽으로 사해와 사극이 설

71) 세 부분을 아울러서 하나의 세계를 구성하려 하면 당연히 분명치 않은 점들이 나타날 수 있다. 『해경』과 『대황경』의 내부구조로 볼 때 해내와 해외의 구분선이 분명치 않은 점, 해내와 대황경 사이에 있어야 할 해외의 위치가 분명치 않은 점 등이 그것이다.

72) 徐敏浩에 의하면 대황경의 각 권에서는 가장 바깥에 있는 지점이 바다에 있거나 바다 가까이 있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徐敏浩, 1996, 235쪽). 조선후기의 『산해경』 독자들이 '대황 밖 바다'의 이미지를 받아들였다면, 세계는 중앙대륙-바다-외대륙-외해로 구성된다.



〈그림〉 천하도의 윤곽과 주요 지명

정되었다. 회남자의 구성을 〈천하도〉에 대비할 경우, 구주를 중앙대륙에, 사해를 내해로, 사극을 외대륙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외해와 일월의 출입처가 확인되지 않는다. 추연의 세계관을 〈천하도〉식으로 해석하면 구주가 중앙대륙으로, 비해가 내해로, 영해가 외해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외대륙과 일월의 출입처가 없다. 산해경의 세계관을 〈천하도〉식으로 해석하면 산경과 해내경 지역이 중앙대륙으로, 해외경 지역이 내해로, 대황경 지역이 외대륙으로, 대황경 밖의 사해가 외해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월의 출입처가 확인되지 않는다.⁷³⁾

그러나 동양 고전의 세계 구성과 〈천하도〉와의 차이는 사실상 사소한 것이었다. 魏伯珪(1727~1798)의 사례는 추연의 세계관이 〈천하도〉식으로 얼마든지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준다. 위백규는 추연의 세계관에 대해 적극적인 해석을 시도했다. ‘중국 사해의 바다를 裨海라 부르는데, 그 바깥으로 대륙이 바다를 둘러싸고 있다. 그 대륙의 바깥으로 영해가 둘러싸고 있으니, 이곳이 땅의 끝이다’라는 설명이 그것이다.⁷⁴⁾ 그러나 추연은 중국 사해의 바다만을 비해로 부르지 않았으며, 비해와 영해 사이에 외대륙을 설정하지도 않았다. 위백규는 아마도 〈천하도〉를 보고 추연의 세계관을 끌어다 설명하려 한 것 같다. 결국 〈천하도〉는 이들 동양 고전으로부터 유추될 수 있는 세계 구성 위에 일월의 출입처를 적절하게 배치함으로써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5. 단원형 세계지도의 변용과 〈천하도〉

1) 〈천하도〉와 단원형 세계지도의 대륙 구성

〈천하도〉 중앙대륙과 내해에 적혀있는 많은 나라 이름 중 대부분은 실재하지 않는 상상의 나라들이다. 조선국, 중국, 안남국(베트남), 섬라국(타이), 유구국(오키나와), 일본, 번호 12국, 서역제국 정도가 실체가 있거나 있다고 생각되던 나라들이다.

중국, 안남, 섬라, 유구, 일본 등은 조선후기 지식인들이 자신의 주변국가로 의식하고 있었던 범위이며, 동시에 직방세계와 그 주변을 표시한다. 〈천하도〉에서 중국을 비롯한 이들

73) 『산해경』 대황서경의 방산과 柜格松은 해와 달이 뜨고 지는 곳이라고 되어 있지만, 대황동경의 유파산은 일월의 출입과 관련된 설명이 없다.

74) 金良善, “韓國古地圖研究抄”, 『崇大』 10(1965).

여러 국가들은 중앙대륙의 동쪽 끝에 몰려 있다. 중앙대륙의 구석진 곳에 자리잡은 직방세계의 위치는 <천하도>가 단원형 세계지도에 대한 조선적 어법이라는 이 글의 주장과 모순되어 보인다. 동양사회에 수용된 단원형 세계지도는 예외없이 표준경선을 태평양 상에 둬으로써 아시아, 특히 중국을 중앙에서 멀지 않은 곳에 오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하도>의 최초 작자나 조선후기의 독자들이 단원형 세계지도에 그려진 남북아메리카와 다른 대륙을 떼어놓고 생각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최석정은 단원형 세계지도에 그려진 오대주의 윤곽, 그리고 설명문에 실린 축척법과 구체설에 대한 논의로부터 『산해경』, 『회남자』, 추연의 세계관을 연상했다. 그런데 이들 동양 고전들은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바다로 둘러싸인 대륙을 가정하고 있었다. 더욱이 『산해경』은 안쪽의 대륙 이외에 바다 밖 대륙의 땅을 별도로 가진 세계를 상상하게 했다.

단원형 세계지도의 대륙과 바다를 『산해경』, 『회남자』, 추연의 세계관 등을 매개로 <천하도>에 그릴 때, 기준은 '조선 혹은 중국을 기점으로 육로로 도달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게 된다. 그때 조선 혹은 중국으로부터 바다를 건너지 않고 육로로 도달할 수 있거나 도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하나의 땅덩어리가 생기고, 망망대해를 건너야만 도달할 수 있을 것같은 또 다른 땅덩어리가 생긴다. 이 경우 남북아메리카를 제외한 구대륙 즉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는 <천하도>의 중앙대륙이 되고, 바다 건너에 있는 신대륙 남북아메리카는 <천하도>의 외대륙이 된다. 구대륙 좌우 어느 쪽 바다로 돌아가더라도 만나게 되는 가늘고 긴 남북아메리카는 원형의 외대륙이 된다. 외대륙은 동양 고전의 대륙 구성과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구대륙을 그린 세계지도로 이미 1402년에 만들어진 <강리도>가 있었다. Ledyard는 <천하도> 중앙대륙의 윤곽이 <강리도> 계열로부터 왔을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⁷⁵⁾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강리도> 계열의 지도와 민간에서 제작되고 유포된 <천하도>는 제작 동기와 열람 범위 등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직접적인 연관을 생각하기 어렵다.⁷⁶⁾ <천하도>의 중앙대륙에서 중국과 그 주변지역이 동남쪽에 자리잡고 있는 것은 <천하도>의 최초 작자가 중앙대륙을 단원형 세계지도의 구대륙(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의 규모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천하도> 도면 전체를 놓고 보면 중국이 여전히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이는 동양사회에 소개된 단원형 세계지도의 특성에서 말미암는 것이었다. 정작 중요한

75) Ledyard, 1994. 물론 이 견해는 <천하도>와 단원형 세계지도와의 관계를 의식한 것은 아니다.

76) <강리도>에서 과장되었던 직방세계는 <천하도>에서 중앙대륙의 한쪽 귀퉁이에 자리잡고 있을 뿐이다.

점은 중앙대륙 안에서의 중국의 위치이다. 그런 의미에서 <천하도>는 중국을 중심에 둔 <곤여만국전도>의 한계를 반영하면서도, 구대륙을 신대륙과 구별함으로써 중앙대륙 안에서 중국의 위치를 주변화할 수 있었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 글과는 전혀 다른 발상이지만, 이미 백년 전에 矢津昌永이라는 한 일본인이 <천하도>와 관련한 대담한 상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그가 조선과 시베리아를 여행하고 귀국 후 펴낸 『朝鮮西伯利紀行』이라는 견문록에는 조선에서 수집한 <천하도>와 그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다.⁷⁷⁾ 그는 <천하도>가 약 1,000년 전에 만들어진 기이한 지도라고 하면서도 <천하도>의 윤곽과 구성이 그가 알고 있던 당시의 세계지도와 너무나 유사한 점을 놀라워했다.⁷⁸⁾

중앙대륙에 기록된 조선, 중국, 일본, 안남은 이미 실재하는 국가였다. 그는 중국 지명 위 아래의 두 하천을 황하와 양자강으로, 疏勒(流沙)은 아시아와 유럽을 가르는 흑해로, 중앙대륙 상단의 대유국에서 숙신국까지를 시베리아로, 번호12국을 인도로, 서역제국을 아프리카로, 번호12국과 서역제국 사이의 만입된 부분은 아라비아 반도와 아프리카 사이의 홍해로 각각 해석했다. <천하도>의 중앙대륙을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포괄한 지역으로 본 것이다.⁷⁹⁾

또 외대륙은 남북 아메리카인데, <천하도>가 만들어졌을 1,000년 전에는 지구를 평면으로 보았기 때문에 남북으로 긴 아메리카 대륙을 둥글게 표현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대담한 상상은 외대륙에 대해서도 이어진다. 외대륙 좌측 상단의 淑女國과 壽麻國 사이는 파나마 해협에, 외대륙 상단의 大澤과 封淵은 북미의 호수지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⁸⁰⁾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상상을 확신할 수 없었다. 이 가정대로 본다면 컬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훨씬 전에 조선이 신대륙을 포함한 세계 전 지역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기 때문이었다. 물론 그러한 결론은 전적으로 오류이다. <천하도>의 대륙구성은 어디까지나 단원형 세계지도를 동양적 전거에 맞추어 적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2) <천하도> 지명상의 특징

77) 矢津昌永은 熊本縣 출신의 지리학자로 이 여행을 할 당시에는 중학교 교사였으나, 뒤에 일본 육군대학 교수가 되었는데, 1904년에는 아시아지리 시리즈의 일환으로 『한국지리』를 간행하기도 한 인물이었다(남영우, “일본명치기의 한국지리관계문헌”, 『地理學』 28-1(1993), 58~59쪽).

78) 矢津昌永, 『朝鮮西伯利紀行』(丸善株式會社書店, 1894: 서울대학교 구관도서, 4790-62).

79) 矢津昌永, 1894, pp. 128~130.

80) 矢津昌永, 1894, pp. 130~132.

(1) 『산해경』에서 빌어온 지명들

〈천하도〉는 단원형 세계지도로 『산해경』, 『회남자』, 추연의 세계관 등으로 걸러내고 재해석한 결과물이다. 서구식 세계지도에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던 부분들만이 필터를 통과했다. 조선으로부터 도달할 수 있는, 즉 확인 가능한 지리적 범위 안의 국가와 산천 이름, 세계지도를 전해준 서양의 존재, 대륙과 바다의 윤곽과 구성 등이 그것이었다.

신구대륙에 걸친 알 수 없는 나라 이름들과 산천 이름들은 제외되었다. 한자로 번역된 낯선 지명들은 조선후기 지식인들에게 ‘꼭 알아야 하거나 가야할 필요는 없는 곳’이었다. 그것은 지명이 아니라 차라리 암호에 가까운 것이었다.

신구대륙의 수많은 암호가 걸러지고 난 빈자리에 새롭게 상상의 지명들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내해와 외대륙에 기록된 가공의 나라 이름과 산천 이름은 거의 대부분 중국 고전 중의 하나인 『산해경』에서 따온 것들이다. 중앙대륙의 지명은 『산해경』의 「해내경」에서, 내해의 지명은 「해외경」에서, 외대륙의 지명은 「대황경」에서 대부분 확인된다.

1602년판 〈곤여만국전도〉는 사실상 독자에게 『산해경』을 연상시킬만한 소지를 가지고 있었다. 〈곤여만국전도〉에는 北高海(카스피해) 윗편으로 一目國이, 그 왼편으로 女人國이 있다. 외눈박이들의 나라, 여자들만 사는 나라라는 뜻으로 『산해경』에 등장하는 지명들이다.

〈천하도〉 작자나 독자는 암호처럼 보이는 신구대륙의 수많은 나라 이름보다 동양고전에 나오는 상상의 나라 이름들에 훨씬 익숙해 있었다. 따라서 〈천하도〉에서 확인되는 대부분의 상상적인 지명들은 단원형 세계지도에 그려진 ‘관심 밖의 나라와 산천이름’을 작자가 알고 있는 단어로 치환한 결과로 생긴 것일 뿐이었다. 〈천하도〉에 실린 이들 단어들은 달리 도교적, 신선적 세계관을 말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중앙대륙에는 걸러진 서양 여러나라들 대신 서역제국이 추가되었다. 이 지명들은 『漢書』西域傳에서 확인되는데, 같은 이름들이 『通志』四夷傳의 西戎과 南蠻 아래에도 열거되어 있다.⁸¹⁾ 그러나 〈천하도〉에서 서역제국은 단원형 세계지도의 아프리카에 해당하게 될 중앙대륙의 좌측 끝에 쓰여 있다.

중국사회에서 티벳 신장 등 중국의 서쪽지역이나 서아시아를 뜻해 왔던 서역은 동양에는 친숙한 용어였다. 그러나 17세기에 이수광은 ‘구라파국은 서역 여러나라 가운데 가장 먼 곳에 있는 나라’라 했고,⁸²⁾ 18세기에 안정복도 서양 선교사들의 출신지역을 ‘서역’으로 이해하고 있었다.⁸³⁾ 이 경우 서역제국은 단순히 중국 주변의 四夷로 그치지 않고 실재하는

81) 海野一隆, 1981, p. 25.

82) 배우성, 1998, 376쪽.

83) 安鼎福, 『順菴集』 권17, 雜著, 天學問答 (번역본 3책, 227~250쪽).

서양 여러나라를 상징한다. 서역은 유럽을 뜻하는 서양을 대신할 유일한 단어였던 것이다. <천하도>의 서역제국 이름은 익숙치 못한 단어를 친숙한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표현한 또 하나의 사례에 해당한다.

(2) 내오악과 외오악

<천하도>에는 특별히 추가되거나 강조된 지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서구식 세계지도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양상이었다. 단원형 세계지도의 신대륙이 별도의 외대륙으로 떨어져 나가고 구대륙만이 중앙대륙으로 재구성되면서 <천하도>는 단원형 세계지도와 다른 새로운 면모를 가지게 되었다. 한 장의 도면에 그려진 단원형 세계지도에서 동아시아는 지도의 중심부와 가까운 왼쪽 편에 묘사될 수 있었지만, <천하도>의 중앙대륙 안에서는 동남부에 그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미지는 <천하도>를 보면서 자신들이 속한 구대륙 안에서 중심과 주변을 따져보려 했을 조선후기 독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었을 것이다.

중앙대륙 동쪽 중국의 주변으로 泰山 嵩山 華山 衡山 恒山이 내오악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이 중앙대륙의 중심이 아니듯 직방세계를 상징하는 내오악도 중앙대륙의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내오악은 물론 중국적인 관념이지만,⁸⁴⁾ 내오악의 위치는 보는 이로 하여금 지리적 중화관이 더 이상 무의미한 것임을 깨닫게 했다.

중화적 지리관의 탈피야말로 서구식 세계지도가 남긴 공헌 가운데 가장 큰 것이다. 조선후기 지식인들은 단원형 세계지도에서 넓은 세계의 실체를 보았다. 그러나 단원형 세계지도의 중앙 가까운 곳에 위치한 아시아, 특히 중국의 모습은 조선후기 독자들에게 '중국 중심의 넓은 세계', 즉 확장된 직방세계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했다. 반면 구대륙과 신대륙이 구분된 <천하도>는 구대륙 안에서 중국이 중심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더욱 단순하면서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그것은 단원형 세계지도에서 특별히 강조되지 않던 곤륜산이 <천하도>에서 중심적인 위치로 부각되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중앙대륙의 중심에는 내오악 대신 중국에서 모든 산의 근원으로 인정되던 곤륜산이 있다. 곤륜산은 안쪽 바다 사방의 광승산, 장리산, 여농산, 광야산 등과 함께 외오악을 구성한다.⁸⁵⁾ 외오악을 구성하는 사방의 네 산이 내대륙과 외대륙 사이의 내해에 위치하는 것은 곤륜산의 위상이 단순히 내대륙의 중심으로 그치지 않고 내해의 양쪽, 즉 내대륙과 외대륙의 중심으로 간주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84) 산해경 산경에는 승산이 빠진 채 나머지 4산 이름만이 발견된다.

85) 『輿地圖』의 <天下圖> (영남대학교 박물관, 『한국의 옛지도』 (1998), 도판 4). 泰山 崇山 華山 衡山 恒山 內五岳 廣野山 麗農山 廣乘山 長離山 崑崙山 外五岳.

운노와 Ledyard의 조사에 의하면 외오악을 기술하고 있는 문헌은 『洞天福地獄瀆名山記』(唐, 杜光庭, 901년)와 『上清靈報大法』 등 도교 서적이 있다고 한다.⁸⁶⁾ 외오악의 존재에 대해 17세기의 이수광은 『宛委餘編』이라는 책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으며⁸⁷⁾ 18세기 후반 丁若鏞(1762~1836)은 『雲笈七籤』에서, 正祖는 『道經』에서 각각 알게 되었다고 한다.⁸⁸⁾ 외오악의 존재 자체가 도교 경전을 제외한 다른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수광, 정약용, 정조가 외오악을 알게 된 문헌들도 대부분 도교와 관련된 것들일 것이다. 그러나 이 단어들이 도교의 경전에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크게 중요치 않다. 이 단어들을 제외하고는 넓은 세계를 표현한 다른 어떤 동양의 前例가 없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하다.

〈천하도〉는 단원형 세계지도의 이미지를 조선의 어법으로 표현한 것이었기 때문에 단원형 세계지도의 동양적 부산물인 중심과 주변의 관념을 여전히 담고 있었다. 단원형 세계지도에서 아시아는 도면의 중심이자 신구대륙의 중심이었다. 그것을 반영하는 〈천하도〉에서 곤륜산은 도면의 중심이자 내, 외대륙의 중심으로 표현되었다.

안정복은 '서양은 곤륜산 아래에 터를 잡고 있어서 천지의 대세로 논한다면 세계의 중심이 되며, 중국은 천하의 동남쪽에 위치한다'고 말했다.⁸⁹⁾ 곤륜산, 서양, 중국의 지리적 위상을 이것과 가장 유사하게 보여주는 것은 〈천하도〉이다. 안정복의 사례는 〈천하도〉가 '중국 중심의 넓은 세계'라는 단원형 세계지도의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3) 곤륜산과 일월의 출입처

〈천하도〉가 단원형 세계지도를 동양 고전의 단어를 활용해 해석하고 그 이미지를 그려낸 것이라고는 하지만 다소 평면적인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곤여만국전도〉의 설명문에는 땅의 위상이 축천법과 구체설을 배경으로 논의되고 있었지만, 〈천하도〉에 보이는 내외대륙의 구성, 지명의 재해석만으로는 독자들에게 그것을 연상시키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또 단원형 세계지도의 이미지를 걸러내 〈천하도〉로 표현하는 데 필터로 쓰였던 동양 고전의 단어들, 특히 육합은 마테오 리치와 그의 중국인 친구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구체로서의 지구를 설명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는 개념인 것도 사실이었다.

결국 이런 문제점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천하도〉의 어딘가에 하늘의 존재를 암시하지 않

86) Gari Ledyard, 1995, pp. 23~26.

87) 李晔光, 『芝峰類說』 권2, 地理部, 山.

88) 丁若鏞, 『典猶堂全書』 詩文集, 권8, 對策, 地理策 (번역본 『다산시문집』 4책, 5~37쪽).

89) 安鼎福, 『順菴集』 권17, 雜著, 天學問答 (번역본 3책, 227~250쪽).

으면 안되는 문제가 남았다. <천하도>에서 곤륜산에 특별한 의미가 인정되거나, 일월의 출입처가 설정된 것은 그 때문이었다.

『산해경』에서 곤륜산은 '해내동경의 서북쪽에 있다'는 간단한 기사가 있을 뿐, 별도의 의미가 부여되어 있지는 않다.⁹⁰⁾ 곤륜산의 이미지는 오히려 『회남자』에 자세하다. 『회남자』에서 곤륜산은 하늘의 문에 다다를 수 있는 곳이며⁹¹⁾, 그 인근에서는 하수(동북쪽), 적수(동남쪽), 익수(동남동쪽), 양수(서북쪽)가 발원한다는 설명이 붙어 있다.⁹²⁾ <천하도>의 한 사본에는 '땅에 九州, 八柱가 있는데, 곤륜산은 팔주 가운데 중심이며 그 기가 위로 통한다'고 설명되어 있다.⁹³⁾ 결국 <천하도>에서 곤륜산은 내외대륙의 중심이면서, 내대륙 위에서 하늘에 닿을 수 있는 유일한 접점으로 묘사되어 있다.⁹⁴⁾

<천하도> 외해 밖 동서쪽 끝에는 해와 달의 출입과 관련된 지명이 명시되어 있다. 동방의 (流)波山과 扶桑은 일월이 뜨는 곳으로, 서방의 方山과 盤格松은 일월이 지는 곳으로 그려져 있다. 이종휘와 안정복의 사례는 <천하도>에 표현된 일월의 출입처가 땅과 하늘이 만나는 지점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종휘는 마테오 리치의 단원형 세계지도를 추연의 세계관에 빗대 설명하면서 추연이 말하지 않았던 의미를 부여했다. '대영해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다'라는 설명이 그것이다.⁹⁵⁾ 안정복도 『萬物類聚』에서 이종휘와 동일한 방식으로 추연의 세계관을 해석했다.⁹⁶⁾ <천하도>를 제외한 다른 어떤 문헌도 조선 후기 지식인들로 하여금 단원형 세계지도로부터 추연의 세계관을 떠올리게 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천지가 만나는 곳을 연상하게 할 수는 없었다.

6. 맺음말

서구식 세계지도가 동양사회에 보급된 현황을 점검하다 보면 한국에 남아 있는 사본들

90) 『山海經』海內東經: 昆侖山 在西湖西 皆在西北 (鄭在書, 1993, 281쪽).

91) 劉安, 『淮南子』, 原道訓.

92) 劉安, 『淮南子』, 墜形訓.

93) 『朝鮮地圖』의 <天下圖> (국립도서관 소장, 도서번호 한-61-6; 李燦, 1991, 163쪽).

94) 곤륜산과 네 물줄기는 중국 고대의 지리적 세계상을 반영하며, 곤륜산을 천지의 중심으로 설정하는 것은 杜光庭의 도교 문헌에서도 확인된다(海野一隆, 1981, pp. 23~24).

95) 李種徽, 『修山集』 권4, 記, 利瑪竇南北極圖記.

96) 安鼎福, 『順菴集』, 萬物類聚, 造化: 裨海環中國外, 如赤縣神州者九 乃有大瀛海 環其外 天地之際焉.

의 숫자가 현저하게 적은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西學에 대한 부정적 사회분위기를 증명할 수 없다면 굴곡 있는 근현대사로 모든 원인을 돌릴 것인가? 이 글은 <곤여만국전도>를 비롯한 단원형 세계지도의 도면과 설명문이 어떤 연상과 해석 과정을 거쳐서 <천하도>로 표현되었는지를 살핌으로써 그 공백을 메워보려 했다.

<천하도>는 무수한 지명들이 도교적, 신선적 세계를 표현한 동양고전으로부터 인용되었던 사실 때문에 도교적, 신선적인 세계지도 혹은 막연한 상상의 세계지도로만 알려져 왔다. <천하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또 지도의 윤곽이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가를 밝히는데 치중되었다.

<천하도>에 가장 많이 인용된 『산해경』은 조선후기 당시 사회에서 이단서적에 가깝다는 일반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하도>는 19세기 말까지도 민간의 평균적인 지식인들이 세계를 들여다보는 창과 같은 구실을 하고 있었다. 조선후기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 태도를 고려한다면 인용된 고전의 성격과 <천하도>의 세계관을 같은 것으로 보거나, 세계관의 비교 없이 윤곽의 계보를 찾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렇다면 무엇이 <천하도> 작자에게 그들 동양 고전들의 단어를 떠올리게 했는가? 작자는 또 무엇을 표현하기 위해 이단서적으로 평가받는 동양고전들을 되살려낼 수밖에 없었는가? <천하도>의 윤곽이 결정되는 데 영향을 미친 세계관은 무엇인가? 독자들은 또 <천하도>를 보며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었는가? 이 글은 이 모든 물음에 대한 답을 동양사회에 전래된 서구식 세계지도, 특히 단원형 세계지도의 도면과 설명문으로부터 찾았다.

단원형 세계지도는 중국과 조선에서 공히 『회남자』, 『산해경』 및 추연의 세계관과 관련된 단어들을 상기시켰다. 넓은 세계, 땅과 천구와의 관계, 구체설 등을 동양의 언어로 이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단원형 세계지도는 중국에서 세계 구성에 관한 거센 논란을 불러 일으켰지만, 논쟁의 당사자들은 공히 이들 동양 고전의 단어들을 신뢰하지 않았다. 반면 단원형 세계지도의 동양적 전례를 설정하는 데 관심이 있었던 조선후기 지식인들은 이들 동양 고전의 단어들을 통해 서구식 세계지도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도교적, 신비적 세계를 가정한 동양고전들이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주목된 것은 단원형 세계지도 때문이었다. 단원형 세계지도는 동양 고전의 세계관을 통해 걸러지고 재해석되면서 <천하도>라는 도면을 낳았다.

동양 고전들은 예외 없이 대륙과 그것을 둘러싼 바다를 가정하고 있었다. 동양 고전을 기준으로 하고 아시아를 기점으로 한다면 단원형 세계지도는 아시아에서 육로로 도달할 수 있는 하나의 땅덩어리와 먼 바다를 건너 도달할 수 있는 바다 밖의 땅덩어리로 구분된다. <천하도>의 내대륙, 내해, 외대륙은 단원형 세계지도의 아시아-유럽-아프리카, 바다, 남

북아메리카가 동양적 기준으로 재구성된 것이었다. 〈천하도〉는 여기에 내오악과 외오악, 곤륜산과 일월의 출입처 등이 새롭게 추가되거나 강조됨으로써 완성되었다.

단원형 세계지도의 이미지 가운데 〈천하도〉가 적극적으로 구현하지 못한 것은 구체로서의 지구였다. 곤륜산과 일월의 출입처를 통해 하늘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못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뒤에 경위도가 그려진 〈천하도〉로 표현되었던 것이다.

조선에서 양반구형 세계지도가 폭넓게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에 들어서서였다. 그러나 양반구형 세계지도는 세계의 중심과 주변을 설정하는 것이 무의미한 형식의 지도였다. 〈천하도〉는 19세기에도 단원형 세계지도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매체로 여전히 널리 보급되었다. 조선후기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된 〈천하도〉를 통해 단원형 세계지도에서 취해야 할 이미지를 알아 나갔다.